

# 수능 공부를 다시 시작하는 자세

새롭게 수능 공부를 하는 시점에서 지난, 제대로 수능 공부를 하였다고 생각하는 1년을 정리할까 한다. 이런 일을 하는 이유는, 첫째, 내가 다시 유사한 실수를 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고, 둘째, 제대로 된 1년을 보냄으로 좋은 대학에 진학하기 위함이며, 셋째, 최종적으로 후의 나의 생애의 기틀을 제대로 잡기 위함이다. 지난 1년의 과오를 철저히 반성하고 마음속에 새겨, 유사한 실수를 다시는 하지 않도록 해야 하겠다.

## 1. 유명강사의 유명강의라도 상대적으로 효율은 매우 낮다.

사실 조금 꼼꼼한 책을 고른다면 혼자서 충분히 독학할 수 있는 내용이다. 결국, 강의를 보는 이유는 나 혼자 공부를 하는 것이 단순히 지겹기 때문이다. 혼자서도 충분히 책과 씨름하면 얻을 수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강의라는 쉬운 방식으로 지식을 얻고자 한다. 이는 분명 비효율적이다. 강의는 반드시 필요할 경우에만, 도저히 책으로는 얻을 수 없는 놀랍고 신비한 것을 얻을 수 있을 때만 들어야 하는 것이다. 이는 이미 작년을 통해 개념이 어느 정도 정리되어 있는 나의 상황에서는 더욱 명심해야 할 부분이다. 무엇보다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한다면 언어영역에 필수적인 독해력을 습득함은 물론, 집중력과 끈기도 함께 길러진다.

## 2. 현재 상황을 변화시키려하기보다, 나의 태도를 고치도록 한다.

언제나 지금 나의 상황은 불만족스럽다. 다른 누군가가 좋다고 하는 교재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다른 누군가가 좋다고 하는 강의를 듣지 못해서, 다른 누군가가 가지고 있는 자습 시간을 갖지 못해서, 투정을 부려보자면 끝도 없다. 그러나 참으로 신기한 것은, 그런 상황에서도 해내는 사람은 있다는 것이다. 상황을 탓하지 말라. 좋은 교재가 있다면,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교재를 모두 완벽하게 끝낸 후에 시작해도 늦지 않다. 좋은 강의를 있다면, 나는 지금 듣고 있는 수업이라도 제대로 내 것으로 소화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자습시간이 부족하다면, 지금 나에게 주어진 자투리 시간이라도 확실히 사용하고 있는지부터 확인하여야 한다.

## 3. 적중에 현혹되지 말라. 결국엔 '실력'이다.

적중이니 출제예상이니 모두 학생들을 현혹하기 위한 술책들이다. 시험은 '실력'이 있으면 두렵지 않다. 두렵지 않으면 저런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에 속지 않는다. 지독하게 철저하라. 하나씩 완벽하고 철저하게, 극도로 치밀하게 공부하면 시험 앞에 당당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건, 대학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건, 결국 모든 기준은 시험 점수이고 이는 '실력'인 것이다. 시험이 쉽게 출제되건 어렵게 출제되건 어떠한 난이도에서도 능수능란한 멀티플레이어가 될 수 있어야 하겠다. 이 모든 큰 이름은 아주 작은 성취가 모임에 기인한 것임을 잊지 않아야 하겠다.

### 반드시 지켜야 할 다짐

1. 하나의 교재를 완벽하게 마치고 난 후, 새로운 교재를 직접 서점에 가서 구입한다.
2. 인터넷강의는 미리 1개월 전에 계획해 둔 것만 최소한으로 듣도록 한다.
3. 무조건적으로 학원은 옳다. 전적으로 학원의 시스템을 신뢰하도록 한다.
4. 수능은 끊임없는 훈련의 결과이다. 올해만 고3 마지막 한 달처럼 공부한다.
5. 시험 대비와 관계없는 일은 최소한으로 줄인다. 모든 역량을 수능에만 집중한다.

# 언어영역

1. 언어영역은 독해력 측정을 목표로 한다.
2. 독해력의 핵심은 내용일치다.
3. 빠른 시간에 내용일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훈련을 통해서만 향상된다.

∴ 언어영역은 끊임없는 훈련으로만 향상될 수 있다.

언어영역은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하더라도 실력이 곧바로 느는 것이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끊임없는 훈련을 통해 향상될 수 있는 과목이다. 많은 지문과 많은 문제를 꼼꼼하게 다루어 보아야 하겠다.

## ※ 올해 언어영역의 학습전략

1. 기본 문제집에 병행하여 모의고사 형태로 된 문제집을 풀이해나간다.
2. 반드시 1주일에 문제집 한두 권씩은 완벽하게 끝마친다(표지에 시작일·종료일 기입).
3. EBS, 새롬, 즐겨찾기 등 유명 출판사의 교재는 다 풀어보되, 기출문제를 항상 가까이한다.
4. MEED, DEET 등의 추론형태의 문제들도 꾸준히 풀어나간다.
5. 강의 듣는다고 성적 오르는 과목이 아니므로, 혼자서 많이 훈련한다.

# 수리영역

1. 수리영역에는 어려운 문제도 있고 쉬운 문제도 있다.
2.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줄 아는 능력은 매우 중요하다.
3. 그러나 쉬운 문제도 계산에서의 오류 없이 정확히 풀어내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하다.

**∴ 수리영역은 철저한 사고훈련과 빈틈없는 계산훈련으로만 향상될 수 있다.**

수리영역은 대학 입시에서 가장 크게 변별력이 작용하는 영역이다. 그러나 정말 지난 수능에서 아쉬웠던 점은 지나치게 많은 계산 실수로 인하여, 모든 문제를 다 풀었음에도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다는 점이다. 계산에서의 실수는 문제 풀이 양의 부족함에 기인하는 것으로, 많은 문제를 다름으로써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다. 어려운 문제도 끈기 있게 풀어낼 수 있도록 하자.

## ※ 올해 수리영역의 학습전략

1. 문제집은 반드시 난이도에 상관없이 한 권씩 푼다.
2. 가능하다면 7~10일마다 문제집을 한 권씩 끝낼 수 있도록 한다(표지에 시작일·종료일 기입).
3. 기출문제는 반드시 하나가 아닌, 다양한 풀이 방법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4. 한 문제를 가지고 1학기 동안에는 1시간, 2학기 동안에는 20분 정도는 고민하도록 한다.
5. 모르는 문제가 생겼다고 바로 질문하지 말고, 답지를 통하여 스스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 외국어영역

1. 어휘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일정 수준 이상의 문제해결력을 가질 수 없다.
2. 구문독해력이나 어법지식 역시 독해력의 기본이다.
3. 리딩스킬은 모든 영어의 토대가 잘 닦인 후에야 제 빛을 발할 수 있다.

**∴ 외국어영역 점수향상의 기본은 부지런하고 성실한 자세이다.**

외국어영역에서의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짐에 따라, 상위권 학생들의 변별 지점이 되가고 있다. 작년 시험에서도 느낀 사실이지만, 외국어영역에서는 가지고 있는 어휘력에 따라, 문제해결력이 늘어날 수 있는 정도에도 한계가 생긴다. 그러기에 초중반까지는 성실한 자세로 많은 어휘를 암기하려고 해야 한다. 후반이 되면 자신이 암기한 어휘를 잊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는 Reading Skills를 숙달해야 한다. 또한, 듣기영역에서도 꾸준히 훈련하여, 빠른 속도의 시험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실력을 가져야 하겠다. 외국어영역은 어려운 영역이 아니라, 많이 부지런하면 잘 할 수 있는 영역임을 명심해야 하겠다.

## ※ 올해 외국어영역의 학습전략

1. 매일 새로운 어휘 50개와 전날의 어휘 50개를 암기하고 테스트한다.
2. 초반에는 시간에 맞춰 문제를 푸는 것보다는 빠르게 독해하는 데에 초점을 둔다.
3. 구문연습과 문법적 실력을 갖추는 것에도 소홀하지 않게 준비한다.
4. 높은 난이도의 지문이 계속해서 출제될 것임으로, 이에 대비할 수 있도록 훈련한다.
5. 강의 수강은 점수 향상에 한계가 있으므로 혼자서 많이 공부하도록 노력한다.